

2009. 20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협소식

서울시 종로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 757·7851 FAX 02·778·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09. 5. 6 발행인 : 한홍순

많은 것을 부여하고 소유하게 만드는 것은 영혼의 탐욕때문이다. 탐욕이란 시간과 육체성, 그리고 복잡성의 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만큼을 정확히 잊어 버린다. 그대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신은 결코 그대 속에 깃들거나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가 좀 더 고귀하고 나은 방식으로 그것들을 지나지 않는 한, 다시 말해 복잡성이 그대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 한, 신이 그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것들은 밖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그것의 복잡성이 그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복잡할수록 더 강하게 하나가 되고 하나는 다른 하나로 변화되는 것이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



싣는 순서

❶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3
❷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5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6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7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8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9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0
❸ 한국평협 회원 단체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12
> 한국가톨릭 경제인협의회	12
>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13
> 한국가톨릭 의사협회	13
> 한국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 협의회	14
❹ 좋은 영화보기	15
❺ 교황님 말씀	16
❻ 교황님의 유머	11 · 14



알림

◎ 한국평협이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농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오는 6월 23일(화) 오후 2시 서울 명동 코스트홀에서 도농·생명·환경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 한국평협 제2차 상임위원회의가 청주교구 꽃동네영성원에서 오는 7월 10일(금) ~ 11일(토) 개최됩니다.



4 2009년 1차 상임위원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4월 24일부터 1박 2일 동안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통해 교회와 사회 안에 불고 있는 사랑과 감사 유통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며 다짐문(4쪽)을 발표했다.

마산교구를 비롯한 13개 교구 회장단과 상임단체장, 한국평협 위원장 등 72명이 참석한 상임위원회에서는 마산교구장 안명옥 주교의 개막미사와 '세스페데스 신부의 방한과 활동'에 대한 신우근 신부 특강, '평신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한홍순 회장 특강과 상임위원회의, 촛불묵상과 성무일도, 파견미사, 문화슈례 등으로 진행됐다.

개막미사 강론에서 안명옥 주교는 "우리는 모든 이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만 위한 삶을 살았고, 그런 결과로 그 삶이 망가지고 부서졌다"고 지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부활을 통한 영워한 삶 외에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할 일이 달리 없다"며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마산교구 신우근 신부는 '세스페데스 신부의 방한과 활동 및 마산교구 습교자들의 삶'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한국 최초로 미사가 봉헌된 마산교구의 옹천 왜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하면서 예수회 신부 세스페데스 신부의 삶과 당시 일본의 역사적인 상황을 포함한 옹천 왜성의 조선인 습교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저녁 진행된 상임위원회는 주로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의 삶을 본받아 평신도로서 실천해야 할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우리의 다짐'을 채택하였다. '우리의 다짐'은 추후 교구 평협 별로 교구와 협력하여 구체적 시행방안을 확립하여, 적극 실천할 예정이다.

둘째 날 한홍순 회장은 '교회와 세상에서의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귀고「평신도 그리스도인」을 통해 평신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강의했다. 특히 교회 안에 하느님 백성이 우리 모두는 "삼위가 일체를 이루듯 각각 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지체를 이루어 참다운 교회적 친교를 이뤄야 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교회와 세상에 참여하여 하느님 나라를 일궈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타짐(전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009년 4월 24-25일 마사교구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사회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근본 원인은 도덕 질서가 무너진 데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동안 우리 평신도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진지하게 반성하였습니다. 특히 김수환 초기경님의 선종을 계기로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아모스 5, 24 참조)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회심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며 믿음과 희망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첫째,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여 사회 복음화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불신과 대립이 만연한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힘쓰면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셋째, 항상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으로 처신하며,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용기 있게 새 복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2009년 4월 25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3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48편으로 마감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우리성가 작곡공모가 총 48편의 응모로 지난 3월 말 마감됐다. 응모작들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5월 중 입상작을 발표하고, 시상식은 6월 중 열릴 계획이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서울평협 1차 선교포럼 열어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3월 21일 서울대교구 연희동성당에서 100여 명의 각 본당 선교관련 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09년도 1차 선교포럼을 갖고 선교의지를 다졌다.

‘성경 안에 나타난 복음화’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양해룡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담당)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생애를 통해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서 이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본당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야 선교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청년사목을 통해 선교에 힘쓰는 서교동본당 청년연합회 김송이 회장의 사례발표에서 “홍익대 앞 거리미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게 된다”며 “청년사목회의 독립적 유행과 예산집행, 전례 시기별 특화된 청년 모임과 프로그램, 교육 등을 통해 청년사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각 본당에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젊은이 선교의 가능성을 보였다.

서울평협은 올해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선교포럼을 개최하며, 다음 선교포럼은 6월 27일 대방동성당에서 열 계획이다.



성가대 지휘자들을 위한 지휘자과정 개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4월 25일 혜화동성당 백동관에서 각 본당 성가대 지휘자들의 리더십과 성음악 전례에 대한 이해를 높기 위한 ‘지휘자과정’을 개최했다.



50여 명의 지휘자들이 참석한 이번 과정에서 지휘자 리더십(최호영 신부)강의를 시작으로 합창 발성과 지휘(남영철), 성음악 문헌(김종기), 전례와 전례음악(이상철 신부) 순으로 강의가 진행됐으며, 파견미사 후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며 지휘자로서 본당에서 겪는 어려움과 보람을 나누기도 했다. ‘지휘자과정’은 서울평협이 펼쳐오던 각종 교육 과정인 ‘평신도학교’의 일환으로 그간 전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들로 하여금 전례를 더 잘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올바른 지휘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운동·단체장 간담회 가져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 등록된 운동·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사도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운동·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4월 22일 저녁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18개 단체 대표와 서울평협 단체특별위원회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운동·단체들 간의 활동을 나누며, 각 사도직 활동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우선 인터넷을 활용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각 운동·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팀 운영을 평협에서 소집해 줄 것을 건의했다.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개강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3월 9일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전체를 공부하는 평신도학교 ‘공의회 과정’의 1학기를 개강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과정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으며, 1·2학기 각 15주, 총 30주간의 강의로 진행된다. 현재 120여명이 등록하여 강의에 임하고 있다.

단체 소식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

신앙세미나 개최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는 지난 3월 27일 첫 신앙 세미나를 개최했다. 초청연사인 오창선 신부는 ‘노동이 탐욕과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에게 존재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일깨우는 자아 성취적 활동이며 이는 기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내용의 강의를 했다. 참석한 회원들에게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좋은 묵상자료를 얻는 시간이 됐다.

외국인노동자부활대축제 개최

서울대교구 경제인회가 주최하고 노동사목위원회가 주관하는 ‘외국인노동자부활대축제’가 혜화동 동성고등학교에서 4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 사제와 수도자 총 2,000여명이 참석하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대축제의 한마당이었다. 1부 미사는 염수정 주교와 경제인회 조학문 담당사제 및 노동사목위원회 허윤진 신부, 외국인 공동체 담당사제 등이 집전하였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각국의 언어로 독서와 보편지향기도, 성가를 봉헌함으로써 전례 안에 하느님의 한 형제·자매임을 보여주었다.

부활미사를 주례한 염수정 주교는 “서로 문화와 환경은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만큼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길 기원한다”며 “주변의 많은 사람이 돋고 있으

니 힘들지만 용기를 갖고 살아가자”고 격려했다. 최철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해고와 불법체류의 위기 속에서 삶의 고통이 크겠지만, 여러분을 돋는 이들이 많으니 삶의 희망을 품었으면 한다. 내년에는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사 후 2부 음식 나눔 시간은 공동체별로 준비한 전통음식을 참석한 모두와 함께 나눴다.

이 행사에는 정부와 기업체의 다양한 후원이 달지했다. 애경산업(주)은 치약 2,000세트를 협찬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1천만 원 상당의 쌀과 라면을 후원하였다. 우리는 행도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수건 2,000개를 지원했고 담당 직원들이 나와 송금과 예금관련 상담을 제공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직원 4명을 파견하여 노동자들에게 체류 중 겪는 고충을 상담하였고 출입국 관련 법규를 담은 안내책자와 홍보물을 무상으로 배포하였다. 서울 경제인회 회원들도 사순절 자선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날의 행사비를 협찬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39차 정기총회 개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윤성, 담당 임기 선 신부)는 3월 14일(토) 정하상교육회관에서 본당 회장단, 신심사도직단체장을 모시고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54개 본당 6개 단체에서 158명이 참석해 2008년 사업실적 보고, 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상정을 하여 통과했다.





한생명(헌혈, 각막, 장기기증) 운동 발대식

대전평협은 지난 3월 14일(토) 39차 정기총회 후 '한생명운동' 봉헌미사를 봉헌하고 한 생명운동에 돌입했다.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는 대전교구 한생명(헌혈, 각막, 장기기증)운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존중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것을 염숙히 선서합니다"는 선서를 하고 생명31 기도문을 바치며 한생명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 전 이루어진 헌혈과 장기기증 행사에서는 인근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신학생과 부지들도 함께 참여해 75명이 헌혈하고 114명이 장기기증 등록을 했다.



대전평협은 2008년 생명나눔과 존중 운동을 펼치기로 계획하고 그해 6월 교구장 주교의 임장을 받았다. 2009년에는 시범보당(탄방동, 법동, 전민동, 천안서부지구)을 주주로 한생명(헌혈, 각막, 장기기증) 운동을 실시하고 교구 전체가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한편, 탄방동성당(회장 이명수, 주임 윤주병 신부)은 3월 28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본당차원에서 한생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행사장에는 유흥식 라자로 주교와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 임기선 요셉 사목기획국장 신부가 함께하여 헌혈과 장기기증 등록을 하며 한생명운동을 지지하여 주었다. 이날 42명이 헌혈에 참여했고 380명이 장기기증 등록을 했다.

「대전평협 24호」 발간

대전평협에서는 4월 15일 대전평협 24호를 발간, 배포했다. B5 크기, 175쪽 분량으로 2008년의 중요한 교구행사와 평협 행사를 담고 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09년 사순절 영성피정

'침묵하라, 채우리라'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신구, 담당 이형수 목사)는 지난 3월 14일(토) ~ 15일(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본당회장과 교구단체장 교구 평협 위원을 대상으로 '침묵하라, 채우리라'라는 주제로 '2009년 사순절 영성피정'을 실시했다.

교구 평신도운동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평신도는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신·망·애 삼덕으로 이루어진 긍정적인 사고와 변화를 받아들이는 영성'을 키워주는 영성강화 프로그램(침묵하기-듣기-깨닫기-행동하기)으로 기획했다.

첫날은 개회미사, 특강(침묵하라, 채우리라 / 이형수 목사)과 워크숍 I (예수님은 내면의 닻을 가지고 계셨다 / 신앙map 그리기)과 성체강복, 영상묵상으로 둘째 날은 주일미사와 워크숍 II (나의 안테나를 찾아라 / 복음화 map 그리기)으로 평신도지도자의 의식과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형수 목사들은 특강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합리적이고 유연성 있는 사고의로 변화하여 교구평신도사도직 운동이 새롭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피정은 강의형식을 탈피하여 연수형식의 워크숍으로 진행해 관심과 참여의 새로운 비전을 배우는 계기가 됐다. 이번 피정에는 모두 78명이 참석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 광주부임 10주년 축하 자리 마련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기수, 담당 김종주 신부)와 여성위원회(위원장 황수자, 담당 김종주 신부)는 4월 15일 교구장이신 최창무 대주교님의 광주부임 10주년을 맞아 조촐한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지구평협 사목협의회 임원연수회와 체육행사

2009년 새로운 사목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자구별로 임원연수회를 개최하여 특강과 뷔임토의를 통해 각 본당 사례들을 듣고 의견들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 ▶ 순천지구 : 연수회- 3월 8일, 저전동성당, 650여 명 참석
- ▶ 북부지구 : 연수회- 3월 22일, 문홍동성당, 200여 명 참석
- ▶ 여수지구 : 연수회- 3월 29일, 미평동성당, 80여 명 참석
- * 특강: '교구장 사목교서에 따른 실행지침' 암병태 자구장신부
- ▶ 광산지구 : 연수회- 4월 26일, 노암성당, 120여 명 참석
- * 특강: '교회와 사목' 이영선 신부
- 한마음축제 - 4월 19일, 하남사단체육공원, 150여 명 참석
- ▶ 목포지구 : 김수환 추기경 추모음악회- 4월 4일, 대성동성당, 목포시립교향악단,
- 단합한마당- 4월 26일, 목포실내체육관, 사제, 수도자, 평신도 250여 명 참석



▶ 광산지구 체육대회



▶ 여수지구 연수

단체 소식

의사회, 간호사회 피정

광주대교구 의사회(회장 문덕진, 담당 박상선 신부)와 간호사회(회장 이숙자, 담당 박상선 신부)는 3월 1일 명상의 집에서 1일 피정을 가졌다.



제2회 전라남도 가톨릭공무원피정

광주대교구 도청향주삼덕회(회장 이기화, 담당 김민수 신부)는 제2회 전라남도 가톨릭공무원피정을 3월 14일 순천 저전동성당에서 2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천시청 향주삼덕회(회장 김승식)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날 '나의십자가를 끌어안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전라남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심을 함양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했다. 안호석 신부 특강과 송재구 형제의 식양체험 발표 후, 최창무 교구장님 집전으로 장엄미사를 봉헌했다.



제3회 광주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광주대교구 광주가톨릭합창단(단장 강영옥, 담당 김종주 신부)은 사순 제5주일인 3월 2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곱 말씀’을 주제로 제3회 광주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했다.



제4회 예비신자 교리교사대회

광주대교구 예비신자 교리교사회(회장 서정권, 담당 이준한 신부)는 4월 25일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에서 교리교사 100여 명이 모여 제4회 예비신자 교리교사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엠마오로 가는 순례의 길’로 나환우들의 고향인 소록도에서 그들의 애환이 담긴 사연을 듣고 나눔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50여 명의 환우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만남을 통해 예비신자 교리교사의 신워과 임무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배영근 신부 금경축 미사 및 축하연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상근, 담당 유장호 목사) 주관으로 지난 4월 9일 전주교구 중앙 성당에서 교구장 이병호 주교의 집전으로 배영근 요셉 신부의 금경축 미사와 축하연이 열렸다.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신자들이 성당 안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린 축하미사는 배 신부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을 영상물로 제작 상영해 웃음과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여성연합회와 교구청 직원친목회 꽃다발 증정과 사제단 친목회와 평협의 예물 증정, 총대리 유장호 목사의 약력 소개, 강상근 평협회장의 축사와 가톨릭합창단의 축가가 이어졌다.

이병호 주교는 치사에서 “6·25전쟁 등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사회적으로 후란스러웠고, 교회적으로 사제 수가 부족해 어려움에 처한 한국을 특별히 선택해 사목 활동의 첫발을 내딛고 나서 박세기 동안 이국땅에서 목자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아온 배 신부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고 치하하고 겸손과 균검, 성실의 삶을 통해 사제직의 모범을 보여 줄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배 신부는 답사에서 “특별히 잘한 것이 없다”고 겸손해 하며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라며 “하느님께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미사 후에 열린 간소한 축하연에서는 소머리국밥 등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케이크 절단식을 갖고 배 신부의 영육간의 건강과 축복을 기원했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주교구 평협 설립 30주년 기념 '야외 미사 및 올레 걷기'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문덕영, 담당 고병수 신부)는 설립 30주년(1979.4.29 설립) 기념행사의 하나인 '야외 미사 및 올레 걷기'를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귀포 외돌개 잔디공원에서 야외 미사를 봉헌하고 오후 5시까지 올레를 걸으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자연 안에서 하느님 사랑의 숨결을 느끼며 천천히 걷는 여정을 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평협 임원과 가족, 신자 그리고 일반인 등 120여 명이 참가했다.

'올레'란 큰 길에서 대문으로 들어오는 좁은 길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으로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제주의 아름다운 해변과 오름을 잇는 12개 코스를 선정하여 도보 여행코스로 내놓아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참가자들은 제 7 코스인 서귀포 외돌개 – 수봉도 – 법화포구 – 월드컵 사거리 – 서건도 바다 산책길 – 풍림 올레교 – 풍림리조트 – 강정사거리 – 강정포구까지 13.2km를 걸으며 하느님이 내려주신 자연유산의 신비와 소중함을 느꼈다.

문덕영 회장은 "올해 초 임워진을 새로 구성한데 이어 30주년 행사를 준비하기에 앞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하여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평신도들이 공의회 정신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평협 임원들이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수 신부는 강론을 통해 "문섬과 범섬이 내려다보이는 이 아름다운 외돌개 잔디공원에서 평협 30주년기념 야외미사를 봉헌하고 올레 걷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커다란 선물"이라고 말했다.

독일 주교단 초청

소공동체 연수 16일부터 제주에서 열려

한국 가톨릭교회의 소공동체 모임이 독일 교회에 전파된다.

독일 람베르그 대교구장 르드비히 쉬크 대주교를 비롯한 독일 6개 교구 주교단과 아시아의 필리핀 올란도 쿠베도 대주교와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싱가폴, 타이완 등에서 총 24명의 주교와 신부, 선교사들이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교구에서 소공동체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말씀에 바탕을 두 한국 소공동체를 배웠다.

이들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 복음 나누기를 통하여 소공동체 모임을 실습하는 한편 저녁에는 서귀포본당과 노형본당을 방문하여 신자들이 실제 모임인 소공동체 모임에 직접 참석하여 복음나누기 7단계에 참여하여 신자들과



▲인도의 아서신부가 서귀포 성당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여 복음나누기를 하고 있다



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며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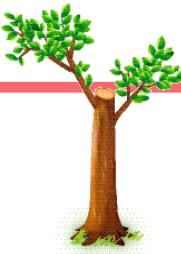
르드비히 쉬크 대주교는 “복음나누기가 끝난 뒤 다과시 간을 가지며 자극적 개인적인 일들까지 함께 나누는 친교에 놀랐다”면서 “우리 주교단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와 따뜻한 환대를 보여준 것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쉬크 대주교는 마지막으로 독일 가톨릭교회를 위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했다. “독일 가톨릭교회가 소공동체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한다. 몇 년 뒤 한국에서

배운 소공동체를 잘 적용시키며 활성화된 독일가톨릭 소공동체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연수 실무자인 고병수(제주교구 복음화 실장) 신부는 “아시아, 특히 한국 교회의 활기 넘치는 모습이 유럽 교회에 밝은 전망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문덕영) 임원들은 이번 소공동체 연수기간 내내 지원을 했다.

교황님의 유머 |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말씀을 모은 책 ‘루치아니 교황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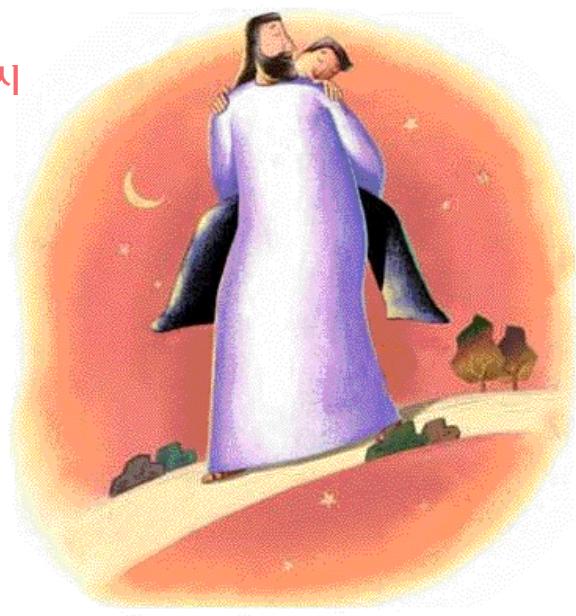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해변가에서 주님과 걸어가고 있었다. 하늘에는 자기 생애의 여러 사건들이 보이는 것 같았고 모래사장에는 두 개의 발자국, 곧 자기 발자국과 주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가끔씩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자기가 살아오면서 아주 어려웠던 때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놀라서 주님께 말씀 드렸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따르면 언제나 제 곁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 제가 정말 어려웠던 때에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네요. 모래 사장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이니 말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래, 맞다. 모래 사장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이지. 그건 내 발자국이란다. 그 때에는 내가 너를 팔에 안고 갔으니까.”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2009년도 교육위원 교육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팽종섭, 담당 민병덕 신부)는 2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사하 10개 레지오 간부 및 직속 꼬마사움 단장을 대상으로 교육위원 교육을 완료했다. 첫 3주간은 서울대학교 고상준 교수의 지도로 살아있는 교육 현장의 모습과 그 실천에 대하여 배우고 실습했으며, 4주째부터 10주까지 7주간은 최영화 요셉 교수의 지도로 교수학습의 실제에 대하여 단계별로 확인하며, 이를 익히고 한 사람씩 강의를 시범적 강의를 통해 그룹 별로 토의, 평가해 본인에게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거치는 과정이었다. 교육은 신청자 37명 전원이 수료하였으며 파견미사에서 민병덕 신부의 ‘교육위원의 의미와 사명’에 대한 강론이 있었다.



가톨릭 교리교육 특강 성료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3월 3일(화)부터 3월 24일(화)까지 매주 전 단원을 대상 교육을 했다. 꾸르실료 회관에서 개최된 교리교육에서 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의 김영주 아가타 수녀는 첫날 ‘저는 밀나이다’, 둘째 날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셋째 날 ‘그리스도인의 삶’, 넷째 날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하여 강의했다. 이번 특강에 연인원 1,269명이 참가하여 320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세나뚜스 직속 학생 꾸리아 아치에스 행사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명동 주교관 소성당에서 직속 중·고생 뺨례시다움과 학생 꾸리아, 성심교정의 ‘기쁨의 샘’ 뺨례시다움 단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5일(토) 명동 주교관 소성당에서 아치에스를 거행했다. 아치에스는 어린 학생들에게 레지오 선서의 의미를 깊이 있게 했으며, 지도 수녀와 세나뚜스 간부들의 지도로 성모님께서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한국가톨릭 경제인협의회

전국총회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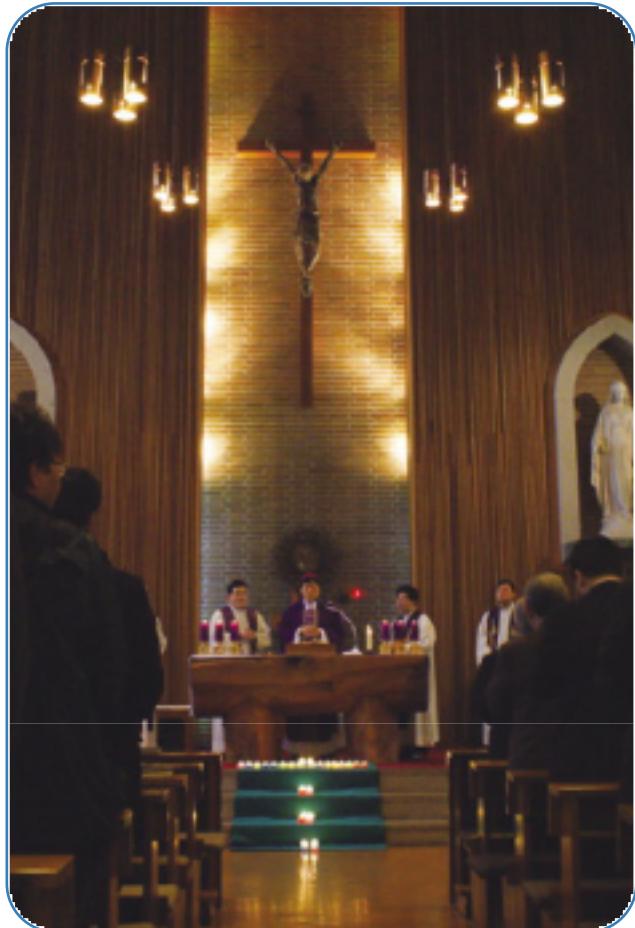
한국가톨릭 경제인협의회(회장 최철수, 담당 조학문 신부)는 9개 교구 임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총회를 개최했다. 3월 27일 오후 4시 부산 우혜의 집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협의회 공동사업인 전국 회워명부 제작과 회보 간행 및 차기회의 개최 등에 대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 후에 부산교구 황철수 주교, 조학문 협의회 담당사제, 오창일 부산교구경제인회 담당사제가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했고, 제3부 만찬을 통하여 각 교구 경제인회 임원이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정기 이사회

한국 가톨릭 나사업 연합회(회장 체규태, 담당 김화태 신부) ‘2009년 정기 이사회’가 4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합정동 연합회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2009년 정기 이사회’에서는 2009년 사업 집행 계획 및 2009년 해외자워 관련 내용이 의제로 진행됐다.



한국가톨릭 의사협회

대구 한티성지에서 피정 개최

한국가톨릭 의사협회(회장 박장상, 담당 최영식 신부)가 3월 28일~29일 대구대교구 한티성지에서 피정을 열었다.

한국가톨릭 의사협회가 주최하고 대구가톨릭의사회(회장 박정한)가 주관한 이번 피정은 ‘생명과 가정’을 주제로 신자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김정우 신부는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 ‘그리스도인의 가정’ 강의에서 “오늘 날 생명 경시 풍조와 가정 봉괴가 만연되고 있는 사회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되살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을 재정립하는데 의사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파견미사를 주례한 조화길 주교(대구대교구 보좌) 주교는 강론에서 “의사는 환자의 육체적인 고통 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환자의 영혼 구원에도 힘써 치유자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전인치료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피정에는 병원 의사, 의과대학 교수 등 총 1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 협의회

전국 임원회의



한국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협의회(회장 김명관, 담당 김덕근 신부)는 지난 8월 21일(화)부터 1박 2일 각 교

구 회장단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김덕근 신부의 강의를 시작으로 전국 회의에서는 결산보고와 각 교구 활동보고가 있었고, 석모도와 평화 전망대 방문이 있었다.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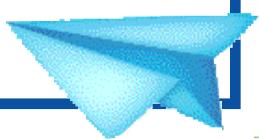
한홍순 회장 장모상

한홍순 한국평협 회장의 장모 서정서 베르나데트 여사가 지난 4월 18일 금요일 선종했다. 장례미사는 21일 오전 9시에 장례식장에서 봉헌됐다. 서정서 여사는 초대 한국평협 류홍렬 회장의 부인이기도 하다.



교황님의 유머 //

‘네가 나를 도와 다오’



어떤 정직한 사람이 아주 어려운 처지가 되자 주님께 말씀 드렸다.

“주님, 저를 기억하시죠. 여러 해 동안 주님을 정성껏 섬기면서 한 번도 무슨 부탁을 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몸은 늙고 돈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부탁 하나 드릴께요. 복권당첨 좀 되게 해주세요.”

몇 달이 지났건만 당첨 소식은 오지 않았다. 상심한 이 노인은 마침내 큰 소리로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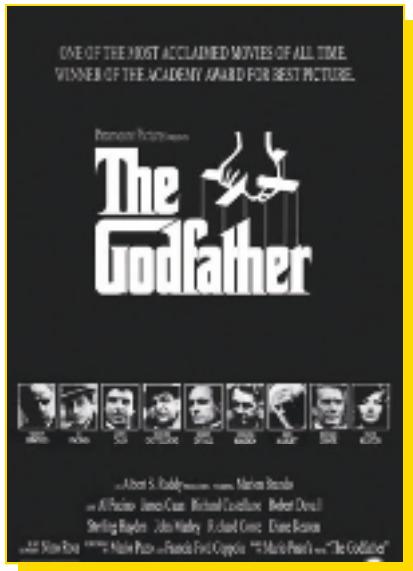
“주님, 왜 저를 도와 주지 않으려고 하세요? 왜 저를 안 도와 주세요?”

그러자 하느님께서 곧바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도와 다오. 왜 복권을 사지 않는 거냐?”

좋은 · 영화 · 보기

좋은 영화보기는 서울평협이 영화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교황청에서 선정한 위대한 영화 45편과 매년 미국 주교회의에서 선정하고 있는 좋은 영화 목록 가운데서 매월 첫 화요일에 상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부(Mario Puzo's The Godfather)

감독 : 프란치스 포드 코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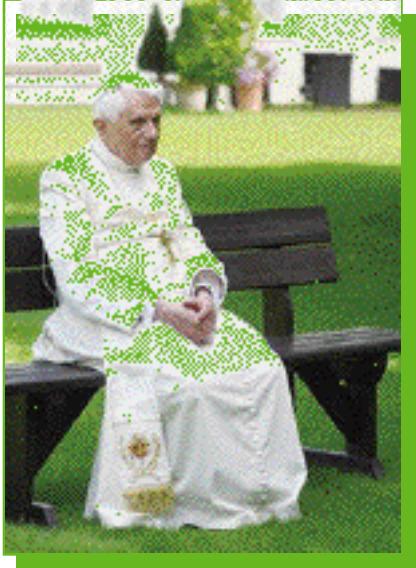
주연 : 말론 브란도, 알 파치노, 제임스 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에 대한 관리권을 인간(아담과 하와)에게 부여 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뱀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 권리를 남용함으로써 하느님과 단절되는 죄의 깊은 늪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느님을 향하고픈 거룩한 갈망과 안락한 현실과 타협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시악함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자본화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두 개의 깃발 사이에서 방황하거나 세속적인 삶의 달콤한 도전 앞에 나약해 진다.

프란치스 포드 코플라 감독은 영화 대부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삶의 질서의 규칙을 왜곡시키고 있는 범죄 집단의 사회를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미국사회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보다 늦게 미국 땅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대체적으로 노동자층을 형성하며 힘겹게 살게 되었다. 그 중 일부는 동향인, 친구, 인척 등을 통해 범죄 조직을 형성하는데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피아 조직이다. 영화는 대부라 불리는 돈 코르오르네(말론 블란도)가에서 유일하게 범죄 조직에 가담하지 않은 둘째 아들 마이클(알 파치노)이 아버지에 이어 두 번째 대부가 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한 인간이 성장하는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의 세례식과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복수를 한 장면의 묶음을 처리를 통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수께서는 광야의 유혹(마태 4:1-11)에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다. 경제가 어려워 평소보다 궁핍해진 요즘 우리들이 묵상해야 할 요점이라고 생각한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2009년 5월 3일, 부활 제4주일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하신 삼종기도 훈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조금 전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사제 서품 미사가 있었습니다. 이 미사에서 저는 열아홉 분을 로마 교구의 새 사제로 서품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이 주일, 곧 부활 제4주일을 택해 이렇게 경사스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착한 목자의 복 음(요한 10, 1-8 참조)이 특색을 이루고 있어서 이 행사에 매우 알맞은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오늘 세계 성소를 위한 기도의 날(성소주일)을 지냅니다. 이 날을 위한 예례 담화문에서 저는 “하느님의 선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인간의 응답”이라는 주제에 대해 성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모든 사람을 성덕으로 부르시고 특히 몇몇은 특별한 봉헌에로 부르시는 주님께 대한 신뢰는 바로 기도로 써 나타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동체와 함께 하든 우리는 성소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 사랑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많은 이를 이끌어 사제의 길로 그리고 봉헌 생활의 길로 나아가 그리스도님을 따라 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많은 부부가 특히 모범을 통해 자녀들에게 자기 스스로 지향해 나아 갈 드높은 지평을 보여 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모든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추천하는 성인 성녀들은 하느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을 이렇게 결합하여 맷은 성숙한 결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이 븎들의 천상 전구에 맡깁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기도 지향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5월 8일 금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다녀오려고 하는 성지 여행입니다. 존경하는 제 선임자들이신 바오로 6세와 요한 바오로 2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신앙의 주요 성지들을 순례하려고 합니다. 저의 방문을 통해 저는 매일 같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성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저는 이들에게 온 교회가 함께 있으며 자기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저는 모든 이의 아버지이시며 단 한 분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순례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의와 상호 존경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대화와 화해를 실천하려고 애쓰는 이들을 위해 가톨릭 교회가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번 여행은 그리스도 교회 일치와 종교 간 관계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뛰어난 상징적 도시입니다. 그 곳은 그리스도님께서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신 곳입니다.(요한 11, 52 참조)

이제 동정녀 마리아님께, 착한 목자의 어머니로서, 로마 교구의 새 사제들을 돌봐 주시도록, 온 세상에 하느님 나라에 특별히 봉헌된 거룩한 성소가 번성하게 해주시도록 청합시다.